

서울과 강릉지역의 국민학생의 영양지식에 대한 연구

김은경*. 강릉대학교 산업대학 식품과학과

국민학생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국민학생의 영양지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양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강릉지역의 국민학생 3,390명(서울의 상류층 1개교, 중류층 2개교, 하류층 1개교 및 강릉시내 1개교, 강릉주변 농촌의 2개교)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개발된 영양지식 조사지 (Nutrition Achievement Tests)를 이용하여 영양지식 수준을 평가 하였다. 전체 대상아동의 영양지식 test의 정답율은 $52.9 \pm 12.9\%$ 였다. '생리적 현상(63.4%)', '식품취급(59.4%)'에 관한 문항의 정답율이 높았고, '영양소(46.1%)', '식품과 사회 (44.4%)'에 관한 문항의 정답율이 낮았다. 서울의 경우, 1학년과 6학년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다른 세 group 중에서 상 - 중 - 하류층의 순으로 유의적인 점수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2, 3, 4, 5학년에서는 상 - 하류층, 중 - 하류층간에만 유의적인 점수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강릉시내 국교 아동의 영양지식 수준은 주변의 농촌 국교 아동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서울과 강릉간의 영양지식 test의 정답율을 비교하면, 1학년은 서울 아동이, 6학년은 강릉아동이 유의적으로 높은 정답율을 보였으나, 2, 3, 4, 5학년은 두 지역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개념별 영양지식을 비교하면, 1, 2학년은 '생리적 현상 - 식품취급 - 영양소 - 식품의 사회 심리적 측면'의 순으로, 3, 4학년은 '식품공업 - 식품취급 - 영양소 - 인생주기 - 생리적 현상, 식품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순으로, 5, 6학년은 생리적 현상 - 인생주기 - 식품취급 - 식품의 사회 심리적 측면'의 순으로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을 비교하면, 본인외에 형제가 없는 아동이, 형제 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아동의 경우가 더 높은 영양지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전체대상자의 영양지식 test 총 문항의 정답율은 부모의 학력(교육년수)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부모의 나이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생리적 현상', '영양소', '식품취급'에 관한 문항의 정답율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국민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다시한번 지적되었다. 즉, 1회용 영양교육이 아니라 아동들의 영양지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양지식 test를 난이도, 신뢰도, 변별도등을 고려하여 다소 수정보완한다면, 국민학교 어린이의 영양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를 평가하고자 할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